

투혼·감동의 질주... 굿바이! 평창

평창패럴림픽 폐막 한국 금1·동 2개 공동 16위
신의현 크로스컨트리 스키 男 좌식 7.5km 사상 첫 금
남자아이스하키, 이탈리아 꺾고 사상 첫 동 '역대 최고'



기습 벅찬 또 하나의 감동 2018 평창 패럴림픽이 18일 폐회식을 끝으로 10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지난 9일부터 강원도 평창과 정선, 강릉 일원에서 진행된 패럴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567명의 선수가 참가해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개최국인 한국은 6개 전 종목에 선수 36명과 임원 47명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총 83명을 출전시켜 지구촌 최대의 겨울스포츠 축제를 즐겼다.

폐회일인 18일 한국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로 핀란드와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애초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총합 10위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장애라는 역경을 딛고 열정을 쏟아내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에 온 국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한국은 지난 11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5km 좌식경기에 출전한 신의현(37)의 동메달을 시작으로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신인 출신의 정승환(32)이 출전한 아이스하키는 17일 이탈리아와의 3-4위전에서 1-0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1개 더 챙겼다.

3피리어드 중반까지 0-0으로 박빙의 대결을 벌이던 한국은 11분 42초에 정승환이 상대 골대를 뒤로 돌아 쥘러준 패스를 장동신이 살짝 스틱을 갖다 대 결승골을 뽑아내며 승리했다.

이날의 성적은 2010년 밴쿠버대회 6위, 2014년 소치 대회의 7위를 넘어선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사상 역대 최고 성적으로 기록됐다.

개최지 (개최연도)	금	은	동	합계	순위
8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2002)	0	1	0	1	21위
9회 이탈리아 토리노(2006)	0	0	0	0	
10회 캐나다 밴쿠버(2010)	0	1	0	1	18위
11회 러시아 소치(2014)	0	0	0	0	
12회 대한민국 평창(2018)	1	0	2	3	16위

※5회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첫 참가)~7회 일본 나가노 대회까지 메달 없음

알펜스타기 한상민
합체어 컬링
크로스컨트리 신의현
크로스컨트리 신의현
아이스하키

자료/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노골드'로 대회를 마감할 것 같았던 한국은 같은 날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경기에서 신의현이 22분 28초 40으로 금메달을 하나 더 챙기며 대회를 마감했다.

신의현의 금메달은 한국이 1992년 알베르빌 대회를 통해 동계 패럴림픽에 데뷔한 후 26년 만에 나온 첫 금메달이다.

장성과 목포 출신의 방민자(여·55)와 정승원(59)이 속해 있어 더욱 눈길을 끈 컬링은 17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3-5로 패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집계 결과 1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8개를 따낸 미국이 차지했다.

캐나다는 패럴림픽 중립선수단과 금메달 개수는 같지만 은메달 수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를 받은 북한은 24명의 선수와 임원을 파견, 노르딕스키에 참가했지만 메달획득에는 실패했다.

지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처음 제정돼 패럴림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남·녀 선수 1명씩을 선정해 수여하는 황연대 성취상에는 아담 홀(31·뉴질랜드)과 시니 피(29·핀란드)가 각각 뽑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메달 함성 17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의 신의현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물의 애국가 17일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리한 대한민국 팀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3경기 7홈런' 호랑이 방망이 뜨겁다

KIA, 삼성전 8-5 역전승

김주찬 그랜드슬램...나지완·최형우 이틀 연속 홈런



'호랑이 군단'이 뜨거운 화력으로 '디펜딩 챔피언'의 위업을 과시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 경기에서 안치홍과 버나디나의 홈런 등에 힘입어 8-5 승리를 거뒀다.

나지완이 KIA의 시범경기 마수걸이 홈런을 터트리며 '한 방'이 이어지고 있다. 나지완이 지난 16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런 경기에서 4회 1사에서 신재영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트리며 KIA의 시범경기 첫 홈런이 기록됐다. 이날 6회에는 최형우가 1사에서 우측담장을 넘기며 4-3 승리에 힘을 보탰다.

기세는 17일에도 이어졌다. 나지완이 대구로 장소를 옮겨 삼성 윤성환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최형우 역시 박근홍에게 홈런을 뽑아내면서

두 경기 연속 그라운드를 돌았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김주찬의 방망이에서 연 출했다.

7회 교체 투입됐던 김주찬이 8회초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냈다. 그리고 타자 일순해 맞은 8회 2사 만루 두 번째 타석에서 최중연과의 풀카운트 접전 끝에 밀어서 우측 담장을 넘겼다. 김주찬의 생애 첫 그랜드슬램 포함, 세 개의 홈런포를 앞세운 KIA는 11-4 대승을 거뒀다.

18일에는 안치홍과 버나디나가 홈런 타자 대열에 가세했다.

1회말 KIA가 먼저 반항을 허용했다. KIA 선발 양현종이 1회 2사에서 구자욱에게 좌전안타를 내준 뒤 리프에게 좌중간 넘는 투런포를 맞았다. 그러자 이어진 2회초 안치홍이 2사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며 우승했다.

KIA는 3회 고졸 루키 오정환과 이명기의 연속 안타 그리고 김주찬의 볼넷으로 맞은 1사 만루에서 최형우의 적시타로 3-2역전에 성공했다.

첫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던 안치홍은 선두타자로 나온 4회에는 좌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김선빈의 2루수 땅볼과

김민식의 중견수 플라이로 홈까지 들어와 득점을 보냈다.

4회말 양현종이 3안타로 1실점을 하면서 4-3. 5회부터 고졸 투수 김유신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상수를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김유신은 김현곤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견제로 1루 주자를 잡아냈다. 구자욱의 헛스윙 삼진으로 프로 첫 이닝을 잘 넘긴 김유신이 6회말 선두타자 리프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김민호의 중월투런포로 4-5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김유신이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자 버나디나가 움직였다. 7회초 2사에서 이명기의 빗맞은 타구가 나온 뒤 버나디나가 임현준을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기며 역전 투런을 기록했다.

김운동-하준영-김세현을 투입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KIA는 8-5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시범경기 전적은 4승 1패가 됐다.

최근 3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힘을 과시한 KIA는 20·21일 시작으로 건너가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마지막 두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기 호남 초등학교 순천북초 대회 첫 우승

순천북초가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북초가 지난 17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에서 광주 수창초를 7-3으로 제압하고 대회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12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1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순천북초에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을 차지한 수창초와 3위 2개 팀(순천남산초, 광주 화정초)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부상으로 야구용품이 수여됐다. 참가 팀 모두에게도 야구용품이 참가기념품으로 돌아갔다. 또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오르는 순천북초 차성준은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야구용품이 지급됐다.

◇개인상 수상자 명단
▲최우수 선수상 : 차성준(순천북초) ▲타격상 : 정선재(0.667·순천남산초) ▲우수 투수상 : 김규민(순천북초) ▲최다 안타상 : 신성결(5안타·순천북초) ▲홈런상 : 서영준(2개·화정초) ▲최다 도루상 : 노이낙(4개·화정초) ▲최다 타점상 : 서영준(11타점·화정초) ▲수훈상 : 오영록(순천북초) ▲감투상 : 배서진(수창초) ▲미기상 : 이하늘(수창초) /김여울기자 wool@



최민정 2관왕... 여자부 종합우승 시동

ISU세계쇼트트랙선수권

2018 평창동계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 최민정(성남시청·가운데)이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이틀째 2관왕에 오르면서 2년 만의 여자부 종합 우승을 탈환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최민정은 1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35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다. 평창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우승해 1,500m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함께 결승에 오른 한국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왼쪽)는 최민정에 0.117초 뒤진 2분23초468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여자 대표팀의 맏언니 김아랑(고양시청)은 김부탕(캐나다·2

분23초592)에게 0.017초 차로 동메달을 내줘 아쉽게 '메달 싸움'을 놓쳤다. 최민정의 금빛 질주는 500m에서도 이어졌다. 평창올림픽 500m 결승에서 실격 판정으로 은메달을 놓쳐 눈물을 흘렸던 최민정은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치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웃음을 되찾았다. 심석희와 김아랑이 준준결승에서 탈락한 가운데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한 최민정은 42초845로 나탈리아 말리체프스카(폴란드·43초441)를 가볍게 따돌리고 단숨에 2관왕에 올랐다.

2015년과 2016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빛나는 최민정은 지난해 이 대회 여자 500m에서 실격당하고, 1,500m에서는 넘어지는 불운을 겪으면서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올해에는 초반에 금메달 2개를 휩쓸어 2년 만의 '왕좌 탈환'에 바짝 다가섰다. /연합뉴스